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지 표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I. 글로벌 지표 정의 <4유형>

지표명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해당 지표는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경제 내 모든 부문의 부가가치) 중 잡는 어업의 부가가치 비율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수준을 의미함. 목표 14.7은 어업, 양식, 관광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본 지표는 어업에 의한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에 초점을 둠. 따라서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합의된 지표 공식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중 비율로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측정함
정의	특정 산업에서 얻는 부가가치의 비율은 그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됨. 따라서 어업부가가치는 국가 경제에서 어업 관련 활동의 중요성과 생계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냄. 국내총생산(GDP)와 부가가치 모두 불변가격과 국내 통화로 측정됨.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포획되는 어족자원은 재생산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그에 의존하는 지역과 산업을 부양할 수 있음. 반대로 스스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포획되는 어족자원은 궁극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장기적인 경제 악화를 야기하게 됨. 어족자원의 상태는 생태학적·통계적 정보를 취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어 어업에 대한 반응으로서 풍부함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글로벌지표 링크 ■메타데이터: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4-07-01.pdf

■데이터: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